

나주, 글로벌 핵융합 에너지 선도도시 도약

‘핵융합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국비 120억원 확보

한국에너지공대에 건설…핵융합 상용화 발판 마련

나주시가 핵융합 실증로용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국비 120억원을 확보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14일 나주시에 따르면 ‘핵융합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를 방문하는 등 총력 대응을 펼쳐 2026년 국비 120억원을 확보 했다.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은 한 국형 핵융합 실증로 개발에 필수적인 8대 핵심기술 중 하나로, 핵융합 상용화에 필요한 16테슬라(전력 500MW)급 초전도 도체 시험·연구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16테슬라급 초전도 자석계통 설계와 운영시설을 확보하게 된다.

이 시험설비는 핵융합 전력 생산을 위한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실험동 조감도

실증로에 적용될 초전도 도체를 실제 운전 환경에서 시험·평가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핵심 인프라로, 대형 고자기장 초

전도 자석의 설계·제작 기술 확보는 물론 국제 초전도 도체 시험 수요를 국내외 유치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초전도 도체 기술은 핵융합 연구 개

발뿐 아니라, 극한 기술(초저온 환경 등)을 요구하는 의료기기, 전력 계통, 가속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어 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495억원(국비 480억원, 민간 15억원)으로 2022년부터 한국 에너지공과대학교와 한국핵융합에너지연 구원이 공동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한국 에너지공과대학교 내에 시설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2026년 상반기 실험동 건축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준공 이후 연구 장비 설계·제작, 초전도 자석 제작을 위한 도체

조달, 제작·시운전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단순한 연구시설 구축을 넘어 핵융합 실증로 기반의 핵심 인프라 확보 상용화 기술력 강화, 지역 에너지 산업 생태계 확장까지 이어지는 다 차원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험설비 구축과 함께 핵융합 산·관·연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주가 ‘핵융합과 미래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국가 전략기술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나주조합원 기자 pose007@gwangnam.co.kr



광양시를 포함한 포항·당진 등 3대 철강도시 시장과 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철강제품 관세 재협상과 K-스틸법의 실질적인 시행령 마련을 위한 여·야·경·법정부의 공동대응 호소문’을 발표했다.

광양, 철강산업 위기 극복 정부 지원 호소

포항·당진과 공동 K-스틸법 시행령 마련 요구

광양시를 비롯한 국내 철강도시 단체장과 경제인들이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시를 포함한 포항·당진 등 3대 철강도시 시장과 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철강제품 관세 재협상과 K-스틸법의 실질적인 시행령 마련을 위한 여·야·경·법정부의 공동대응 호소문’을 발표했다.

3대 철강도시 시장들은 공동으로 철강 산업의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법정부 차원의 대미 재

정인화 광양시장은 “지난달 여야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국회를 통과한 K-스틸법에 이어 빠르게 제정되고 있는 시행령에 기업의 부담이 큰 그린 철강 공정 전환 인프라 확충 등 기업들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담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광일 광양상공회의소 회장은 “K-스틸법의 제정 의지는 감사하고 존중하지만 실질적인 기업 부담 완화책이 동반돼야 한다”며 “특히 생산원가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 요금 문제 해결 없이는 수십 조원이 필요한 저탄소 전환도 요구하다. 정부는 시행령에 기업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긴급지원책을 즉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이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 시행령의 기업 전기요금 부담에 대한 경감대책, 그린 철강 공정 전환 인프라 확충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책 마련을 호소했다.

또 철강산업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당진시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포항시에 이어 광양시와 당진

시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채권신고 공고(1차)

당회사는 2025년 12월 04일 주주서면 결의로 해산 결의되었으므로 당회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2026년 02월 14일까지 그 채권액을 당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시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12월 15일
주식회사 금정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13, 디동3-105호 (빛가람동)
청산인 최 준 희

NACOS’S

나의 소통코스 | 종합광고솔루션 - 나코스(유)

www.nacos.co.kr NAVER 나코스 | 검색

<http://in-point.kr>
1%부족함 까지도 디자인 하다.

Design Specialist & Creative Think

디에스시티

실내인테리어디자인 · 설계 | 실내건축공사업 | 3D형상 · 모델링 / 조감도
옥 · 내외사용물디자인 / 설계 | 경관디자인 / 설계 | 산업디자인

(주)디에스시티 | 광주광역시 북구 태봉로 53 (신민동, 2층)
디에스시티(주) |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산길로 1-1
대표번호 | 062-433-8800

● 1004섬 신안 신의도 칠나를 담다!

YouTube

★구글아이디가 있으시아 구독하실수 있습니다
광남일보 iTV

구독 · 좋아요 · 알림 설정까지!!

광남일보 iTV 프로그램

• 호국화 차 茶의 성지, 전남 두륜산 대홍사

• 나주지역 포교의 중심도량 덕룡산 불회사

광남일보 iTV

태양광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신안군 내 신규·기존 태양광 발전사업의 기자재 조달 시 국산 제품을 최우선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기술 교류와 효율적인 유지보수 체계 구축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신안군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의 중심지이다”며 “이번 협약이 국내 태양광 산업에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국내 태양광 산업을 이끄는 거점지역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

신안, 태양광 기자재 국산화 정책 선도

태양광산업협회와 ‘국산화 사용 협약’ 체결

신안군이 정부의 태양광 기자재 국산화 정책 이행을 선도하며 국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군에 따르면 최근 김대인 군수 권한대행과 신안 태양광산업협회(12개 태양광 발전사·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신재생에너지 정책 이행을 선도하기 위한 ‘신안 태양광산업 기자재(인버터 등) 국산화 사용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신안군이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 거점지역으로 성장함에 따라 태양광 발전의 핵심 부품인 인버터 등을 국산 제품 중심으로 조달해 국가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국내

화순, 겨울철 명품과일 ‘설향’ 딸기 출하

화순군은 최근 겨울철 대표 명품과일인 고품질 화순 딸기 출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화순 지역은 산간 지형으로 일교차가 커 당도는 높고 산도는 낮은 고품질 딸기 생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주 재배 품종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설향’으로 과즙이 풍부해 신선하고 산뜻한 맛이 특징이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는 안정적인 딸기 생산을 위해 지난 9월 한 달간 꽃분화

를 검사하고, 정식 후에는 10회 이상 재배 관리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며, 농가 기술 지원을 강화했다.

또 올해는 전환경 생태적 재배 인식 홍보를 위해 딸기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원예작물 생태적 종합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해 미생물을 활용, 화분배개별 적기 투입 등 생태적 관리 기법을 적용해 고품질 딸기 생산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는 안정적인 딸기 생산을 위해 지난 9월 한 달간 꽃분화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